

아 · 림 · 다 · 운  
살 · 사람

/category/bosal.asp



이기성 법사 가족은 매주 전진부대 돌격대대 호국 총질사에서 민간성직자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은 2월 26일 일요법회 이후 장병들과 함께한 모습. 사진 앞줄 왼쪽부터 이기성 법사, 어머니 임양식 보살, 군중 병 이상호 상병, 최주식 이등병, 강정기 법사, 서창욱 돌격대대장, 아버지 이두훈 거사, 이기승 주임원사, 뒷줄 왼쪽 네번째가 아들 병철군, 다섯번째가 딸 주영양.



강정기 법사는 법회때마다 집전을 받는다.



# 일요일, 3代가 군법당 가요

군포교 앞장 이기성 법사 가족

누님 가족과 교대로 충절사 찾아 법회 주관  
부모님·자녀도 봉사, 장병들에 가족에 전해  
새 법당 건립이 과제... 권선문 들고 전국 누벼

"장병들이 활짝 웃으며 인사를 할 때 저도 모르게 힘이 납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힘에 부치지만 장병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특히 가족들과 함께 하는 일이라 더욱 신이 납니다."

2월 26일 경기도 문산 전진부대 돌격대대 위병소. 봉고를 타고 온 이기성(45) 법사 가족들은 경계 근무를 서는 장병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눈다.

"한주동안 잘 지냈니? 오늘은 얼굴이 좋 아보인다."

"법사님 오셨습니까?"  
민간인들이 군 주둔지 안에 들어갈 때 까  
다로운 신분 검사를 하는 것과 사뭇 다른  
풍경이다.

이기성 법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전진부  
대 돌격대대 호국 총질사에서 법회를 주관  
하는 재가 포교사다. 2월 15일에는 전진부  
대장으로부터 민간 성직자로 임명받았다.

법당 앞에 주차하자마자 아들 병철(17)군  
과 딸 주영(22)양이 위문품 박스를 법당으

로 옮긴다. 아버지 이두호(77), 어머니(69)  
는 노구를 이끌고 법당으로 향한다.

이날 장병들을 위해 준비한 위문품은 김  
밥과 오뎅국, 굴. 이기성 법사는 새벽 3시부  
터 아내 김명식 보살과 함께 무려 6시간 동  
안 김밥을 만들었다. 10인용 밥솥에 밥만 12  
번을 해 152줄의 김밥을 준비했다. 전날 준  
비를 할 수도 있지만 재료만 준비하고 새벽  
부터 김밥을 싸기 시작한 것은 장병들에게  
신선하고 따뜻한 김밥을 먹이기 위해서다.  
6시간동안 김밥을 만들었다면 피곤도 하겠건  
만 이기성 법사의 얼굴에는 웃음뿐이다.

잠시후 이기성 법사의 누나 미자(50)씨와  
매부 강정기(58)법사가 도착했다. 강정기  
법사도 민간성직자로 위촉된 호국 총질사  
법사로 이기성 법사와 번갈아 가며 매일 두  
차례씩 법회를 주관한다.

강 법사는 이외에도 매일 1, 3째주에는  
고양 국군복제병원 군법당에서 2번째 법회  
를 주관하며 군포교에 헌신하고 있다.

이날 법회에는 서창욱 돌격대대장 내외,  
이기승 주임원사 내외를 비롯해 장병 70여

명이 동참했다. 강정기 법사는 법회에서  
"부처님 법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 참된 불자"라며 "자증이 나는 일이 있  
더라도 한번 더 참고 주위 동료에게 따뜻한  
위로 한마디 해 줄수 있는 병사가 되자"고



법문했다.  
법회가 끝나자 이기성 법사의 어머니 임  
양식 보살이 김밥을 썰고 이마자 보살이 아이  
스바스에 담은 오뎅국을 병사들에게  
나눠준다. 이기성 법사와 강정기 법사도 불

이기성 법사가 법회가 끝난  
이후 장병들과 가벼운 담소  
를 나누고 있다.

전에 올려진 밀감을 내려 병사들에게 나눠  
주며 가벼운 담소를 나눴다.

김성업 상병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기  
승 주임원사가 법문 테이프를 틀어놓고 듣  
는 것으로 법회를 대신했는데 법사님들이  
오시고 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설명  
해 주어서 좋다"며 "법사님이 오신 이후에 법  
당을 찾는 장병들이 두배로 늘 정도로 법회  
가 재미있어졌고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이기성 법사 가족이 돌격대대 호국 총질  
사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큰누나인 이연  
옥 보살이 친구로부터 충절사에서 힘들게  
법회를 보고 있다는 이기승 주임원사의 이  
야기를 듣고 가족회의에서 법회 위문을 가  
자고 결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법회보다는 매주 장병들에게 줄  
위문품이 걱정이었다. 떡볶이, 자장면, 떡  
국, 카레 등 장병들이 부대에서 자주 먹  
지 못하는 음식들을 준비하려면 주당 20만  
원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  
디어를 낸 것이 가족이 돌아가면서 대중공  
양을 내자는 것. 지금은 이기성 법사와 부  
모님, 강정기 법사, 큰 누나 가족, 큰 형 가  
족이 번갈아 가며 후원을 하고 있다.

이기성 법사의 가족이 모두 군포교를 위  
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원동력은 다름아  
닌 부모님의 불심이다. 70이 넘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집에서 매일 새벽 예불과  
108배를 거르지 않을 정도로 독실한 부모  
님은 지역 군법당이 어렵다면 항상 찾아가  
위문하곤 했다.

보고 배운 것이 무섭다고나 할까? 이기  
성 법사도 고등학교때부터 불광 법회에 나  
가 광덕 스님으로부터 계를 받고 지금까지  
부모님과 함께 매일 수행을 거르지 않고

있다. 누나인 이마자 보살을 만나 불교에  
심취하기 시작한 강정기 법사도 환갑이 가  
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동국대학교 불교  
대학원을 수료하고 현재 논문을 준비하는  
등 체계적으로 불교 공부를 하고 있다. 이  
기성 법사의 딸인 이주영양도 현재 동국대  
학교 불교학과 3학년이며 가족 전체가 부  
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는데 푹 푹  
몰두하고 있다.

이기성 법사의 아들 병철군은 "일요일날  
집에 누워있는 것보다 아버지를 따라 법당  
에 나오는 것이 훨씬 좋다"며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 모두가 열심히 봉사하시  
는 모습을 보니 저도 크면 저렇게 해야겠다  
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기성 법사의 가족들에게는 최근 한 가  
지 소원이 생겼다. 내무반을 개조한 호국  
총질사가 3월말 군 병영 개선 사업으로 허  
물어져 새로운 법당을 건립하는 것. 매일  
아침 예불과 108배를 할 때면 가족 전체가  
마음을 모아 서원을 하고 있는 등 작지만  
소원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을 펼치고 있다.  
강정기 법사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동  
문들을 중심으로 새 법당 건립을 위해 권선  
문을 하고 있고 시간을 내서 전국을 다니며  
화주를 해 법당을 새로 건립하겠다는 의지  
를 갖고 있다.

법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기성  
법사와 강정기 법사의 발걸음은 무겁다. 돌  
격대대가 위치한 구릉에 법당을 새로 지었  
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주에 또 다시 활짝 웃  
으며 법회에 참석할 병사들을 떠올리며 집  
으로 향했다.

문산/글=김두식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www.bexpo.org **무료입장**

불교 문화와 불교산업의 특별한 만남, 2006한국불교박람회 사부대중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2006 한국불교박람회

한국불교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이 총 집결된 이번 행사들 통해  
이시대 한국불교의 모습을 되짚어 보고, 21세기 미래문명의 대안으로서  
불교를 새롭게 자리매김 할수 있는 계기가 될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전시품목 : 사찰건축, 참단포교, 장례문화, 불교용품, 전통차, 종단 및 교육, 불교유행관, 특별공연 및 부대행사

전시기간 **3월 23일(목) ~ 26일(일)**  
관람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전시장소 서울무역전시장(SETEC)  
문의 TEL.(02)736-0993

주최: BBS불교방송, (주)convention    주관: 한국불교박람회 사무국